

물고기 '마음읽기' 연구의 시작

산문박의 禪

민물고기 연구가 최기철 박사

장미비가 축축히 내리는 날, 넘실거리는 황토색 빛깔의 한강물을 보면서 '이 녀석들도 더운데 비가 와서 시원하겠구먼' 하고 너털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다.

최기철 박사.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금세 알 수 있는 한국에서는 첫손가락에 꼽히는 민물고기박사.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중모에 자상한 미소, 물고기를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꼭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구도의 길' 닦은 40년 외길

"난 그 녀석들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녀석들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항상 내게 얘길 하니 이 할아버지가 안들어줄 수 있나요?"

자신의 물고기에 대한 연구는 탐구가 아닌 대화라고 말하는 최박사는 물고기의 '마음읽기'가 연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거대한 신관에서 동서지역에 사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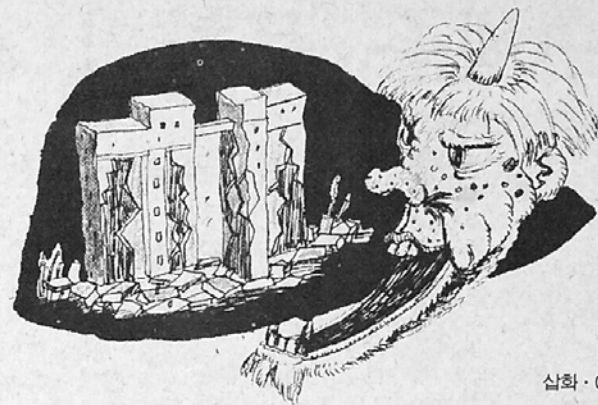
집을 짓고 사랑을 하고 협동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모든 물고기들의 행동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질서를 존중하고 정해진 자기 몫에 충실한 정착한 녀석들이죠." 사람들의 탐욕과 무질서를 나무라고 있었다.

"현재 휴전선 이남에만도 약 1백45종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오대산 월정사 금강못에서 뛰놀던 열목어녀석을 이젠 꿈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한 분야의 학자가 아닌 물고기를 지식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배어 나왔다. 40여년을 한결같이 전국 1천5백여개면을 찾아 다니며 1백45종의 민물고기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손과 발로 알아냈던 그것기에 이런 안타까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속 상처로 남아 있었리라.

신심깊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



삽화·이기선

삼풍 생환자 '무유공포' 보여줘

죽음은 공포인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오지 못할 저 세계로 가고 다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이란 최악의 시간이다. 그 최악의 고비를 넘기려고, 아니 그 고비가 자기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단말미의 인간됨을 쓰는 것이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다. 천재가 아닌 인재의 사고,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사의 부실, 용도변경, 무조건 영업만 하면 된다는 인간의 욕망이, 많은 인명을 저승으로 보낸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거주공간, 상업공간, 위락공간 모든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간건축은 자연과 상통하게 건축되어야 한다. 자연의 생명이 자유이듯

함람미달, 기준미달, 용적미달, 과적의 과분수가 되는 죽음에 이르는 건축을 높게 세우고 있는가. 욕망, 과욕, 자만, 독선이 뒤질새라 날뛰는 세상이다.

최명석군, 유지환·박승현 양이 얼마나 충열한 생명을

의 현정인가. 암흑속에 갇혀 있으면 절망과 포기가 엄습하게 된다. 죽음으로 다가가는 시간에 자신이 그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감지하였다면 정말 무서운 경련이 있었을 것이다.

확신 가지면 죽음 이겨

그런데 최근은 무심하게 잠을 청하고 장난감 기차들, 또한 최양은 플라스틱 연마기를 만지작거렸다. 그 폭넓은 여유는 생명을 살이오게 하는 기원이 되었을 것이다. 수도 자라도 가질 수 없는 파적(破寂)의 한가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유양의 냉카피가 마시고 싶다는 일성은 거룩한 생명의 노래이다. 살고 싶다, 죽어간다 이러한 이분법의 갈림이 있었을 것인데 한 모금 냉카피를 갈구하였다는 것은 생사의 분별일 것이다.

장하고 거룩하다. 그들은 복을 받은 환생이다. 앞으로 그들의 재생의 목소리가 삶의 기도문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죽음은 공포이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일절을 읊미하여 보아야 한다. 무유공포(無有恐怖)이다. 두려움에 직면하여 두려움에 속아서는 사람이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없다. 공포가 앞에 닥쳐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망이라고 생각하고 공포가 없음을 확신을 가지면 죽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은 무서움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명석군은 달인(達人)의 경지에 있었던 삼매자일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존귀하게 보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 주변에 공포가 어둠으로 무명으로 암흑으로 짓눌리고 있다 하더라도 대광명의 생명이 새로운 슬결을 주는 것이라고 각중하여야 한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36

공포(恐怖)

탐구아닌 정감어린 대화... 질서·정직 등 배워 '물고기는 제물에서 놀아야' 방생 다시 생각을

생물군생은 각기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히 물고기는 더 많이 다르겠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40년전 서울대 교수로 재직시 강릉을 가는 도중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본 태백산맥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떠오른 이 한 생각이 최박사를 물고기박사로 이끈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물고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거기엔 작은 생명 하나에도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민물고기가 몇 종류나 되는지, 그 녀석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는가요?"

대답할 수 없었다. 고작 이름을 대봐 야 붕어, 송사리, 미꾸라지, 잉어, 피라미 생태계에 대한 상식수준 정도.

"버들붕어녀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변색을 잘하고 거꾸집도 지을줄 알아요. 참붕어녀석은 아주 진한 사랑을 하는 놈이죠. 또 송사리녀석은 좁은 공간에서는 먹을 것으로 텃세가 심한 녀석이구요. 우리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

지 어려서부터 불교를 좋아했다는 최박사는 불법속에 세상 모든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건 자신의 탐구작업과 불법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는 끈질긴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고 불법도 끝없는 구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길 모두 깨달음의 순간까지 삶을 살듯 가야 하는 길이지요."

최박사는 굳이 자신의 불심을 드러내 보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과 삼속에는 이미 불법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내 말을 이어 요즘 불자들 사이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방생에 대해 잘못된 점을 꼬집기 시작했다.

"방생의 의미가 뭔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릇된 관행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해를 입히고 있어요.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고통받듯 물고기에게도 알맞는 환경이 있는데 말이예요."

강마다 수질급수나 환경이 다르며,

살지어는 상류와 하류의 차이에도 민감해 서식지를 옮겨 놓으면 물고기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생이라는 미명하에 제물에서 잘 노는 물고기를 잡아서 엉뚱한 곳에 놓으니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역경에 가까웠다. 그러나 애정이었다. 불교에 대한 애정이었고 물고기에 대한 애정이었다.

천지만물 내음과 한뿌리

지난 76년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도 한결같이 물고기에 대한 애정을 지녀온 최박사는 요즘도 사당동 한켠에 마련한 (재)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에서 환경보전과 민물고기연구에 여념이 없다. 게다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또한 남다르다.

"대한민국 어느 강, 시냇가에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망종고 먹음 감으며 물고기와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결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지론

을 가진 최박사는 창의성, 독심, 성실성이 세가지야말로 기성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우리의 재산이라고 말한다. 결국 최박사의 물고기 사랑속엔 나라사랑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깃들여 있었다.

명이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물과 물고기 걱정뿐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최박사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슬퍼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다했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어요"라고 말했다. 그뿐이었다. 더이상 사족이 필요없는 대답이었다.

천지가 내음과 한뿌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실천하며 여든 여섯 해를 물고기 연구에 바친 최기철 박사. 남은 여생을 자신의 나이만큼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발원. 그는 이미 물고기들의 부처님이 되어 있었다.

한영우 기사

불교지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발: 8월 28일
- 동참금: 295만원
- 일정: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문자탑고개-혼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택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발: 8월 25일
- 동참금: 188만원
-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발: 8월 27일
- 동참금: 210만원
- 일정: 서울-상해-성도-라사-장제-시가제-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스리랑카 캔디 불치제 6일

-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축제 캔디 페라헤라·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발: 8월 4일
- 동참금: 118만원
-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그리야-폴론나루와-넬불라-캔디(불치제)-콜롬보-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195만원
-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충안-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발: 8월 19일
- 동참금: 100만원
-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 보로부두르 사원-
- 출발: 8월 27일
-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 출발: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65만원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VECHO ADVENTURE TOURS, LTD.

이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